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 학위논문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사회심리전공  
이 진 현



## 초 록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행복하면 친절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취업이나 연봉 등 직장에서의 평가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언제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행복한 사람은 현실의 부조리에 무관심하다거나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반된 태도는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하였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다른 이는 노력보다는 선천적이고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행복의 원인은 노력이 아닌 유전적 요인이라고 믿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Essentialist Beliefs of Happiness)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참여자 총 516명의 대상으로 세 편의 경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행복이 개인의 노력보다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을 때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평가하는 사람의 행복 수준이 낮으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검토하고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본질주의적 신념, 행복한 사람, 선호, 행복, 노력, 유전적 요인

**학 번** : 2016-20197

# 목 차

초록 .....	i
서론 .....	1
행복한 사람에 대한 상반된 태도 .....	2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	4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 .....	7
연구 개요 .....	10
연구 1 .....	11
연구 방법 .....	11
연구 결과 및 논의 .....	14
연구 2 .....	22
연구 방법 .....	22
연구 결과 및 논의 .....	26
연구 3 .....	33
연구 방법 .....	33
연구 결과 .....	37
논의 .....	44
종합논의 .....	46
참고문헌 .....	56
부록 .....	67
Abstract .....	74

## 표 목차

[표 1] 변인의 기술 통계량 및 변인간 상관관계 .....	16
[표 2]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연구 1) .....	19
[표 3] 고용 관련 평가를 예측하는 회귀분석 결과(연구 2) ....	30
[표 4] 기사에 따른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EBH) 점수 평균 .....	38
[표 5]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예측한 회귀 분석의 결과(연구 3) .....	41

## 그림 목차

[그림 1] 참가자의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EBH) 과 주관적 안녕감(SWB) 수준에 따른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	18
[그림 2] 지원자의 유능함 점수와 행복도에 따른 고용 의도와 연봉 액수 .....	28
[그림 3]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EBH)과 주관적 안녕감 (SWB)에 따라 행복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정도.....	32
[그림 4] 기사 종류와 참가자의 주관적 안녕감(SWB)에 따라 행 복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정도.....	43



*“Happiness is not something ready-made. It comes from your own actions.” -  
Dalai Lama XIV*

*“We are led to conclude t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human happiness—how one feels at the moment and also how happy one feels on average over time—are primarily a matter of chance.” - Lykken and Tellegen(1996)*

“ 행복한 사람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고용하겠다 ” (Corcoran, 2015)고 주장하는 CEO의 회사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회사에서는 직원을 평가할 때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직원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고려한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거나 연봉을 제공할 때, 행복한 직원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혜택을 얻는다. 이처럼 행복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할까? “행복한 직원이 더 생산성이 높다” 는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통하고 있으며(Kluger & Tikochinsky, 2001; Fisher, 2003), 행복한 사람일수록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고용이나 연봉 등에서 혜택을 얻는다(for a review, Lyubomirsky, Diener, & King, 2005). 이처럼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언제나 우호적인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 (Goethe, 1796)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취지기도 하며,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사회 문제를 도외시하는 사람이라고 간주되기도 한다. 행복한 사람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우리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상황과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행복에 대한 신념과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평가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Essentialist Beliefs of Happiness; Choi, Yu, Lee, & Choi, 2018), 곧 사람의 행복



은 본질적으로 유전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를 세 편의 경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행복에 대한 유전적 본질주의가 행복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 영향력이 언제 더 강화되거나 약화되는지를 확인하였다.

## 행복한 사람에 대한 상반된 태도

“행복한 사람은 천박하고 성가실 정도로 명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Lyubomirsky, Diener, & King, 2005)? 그렇지 않다. 다수의 경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보다 선호한다. Lyubomirsky와 동료 연구자들(2005)은 행복이 호감과 혜택을 불러온다는 것을 다수의 경험적 증거를 통해 보여주었다(행복이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 = .34). 행복한 사람은 더 실력있고(Diener & Fujita, 1995),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으며(Schimmack, Oishi, Furr, & Funder, 2004), 도덕적인 사람, 심지어 천국에 갈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King & Napa, 1998). 행복한 사람에 대한 강한 선호도는 직장에서의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행복할수록 취업에서 더 유리하고(Burger & Caldwell, 2000) 상사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며 더 높은 연봉과 수입을 얻는다(Cropanzano & Wright, 1999; Staw, Sutton, & Pelled, 1994; Diener, Ng, Harter, & Arora, 2010). 이처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는 문화나 세대의 차이를 넘어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다(e.g. Koo, Lee, & Suh, 2009; Perry, Perry, & Weiss, 1986).

하지만 현실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시선은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행복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처럼 행복한 사람이 호감과 선호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그들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마냥 밝고 행복해 보인다면 그는 좋은 평가보다는 질투나 미움을 받을 것이다

(Lyubomirsky, 2008, p.42-43; Lyubomirsky, 2000). 혹자는 “온전한 정신과 행복은 공존할 수가 없다”(Sanity and happiness are an impossible combination; Mark Twain, 1923)라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다”(Happiness in intelligent people is the rarest thing I know; Hemingway, 1986)라는 말을 통해 행복이 지적으로 유익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 Ehrenreich(2009)는 그녀의 저서 ‘긍정의 배신(Bright-sided)’에서 행복한 사람을 “유복한 사람들, 사회 규범에 순응하는 사람들, 신앙을 위해 판단을 삼간 사람들, 사회 불의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였다. 또한 그녀는 삶의 만족과 자족감이란 “현실의 불평등과 권력 남용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에 애착”을 갖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이 책이 New York Times와 Amazon(2009)에서 베스트 셀러에 올랐다는 사실은 대중들 사이에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에 동의하는 이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행복한 사람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종합하면,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도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면, 행복 자체에 대한 태도가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나라는 행복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거리끼는 일본과 이집트 등에서는 그들을 “경박”하거나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한다(Diener & Suh, 2006; Suh, 2007; Sung & Suh, 2007). Joshanloo & Weijers(2013)에 따르면 특정 문화의 사람들은 행복이란 어리석거나 가벼운 상태, 신과 분리된 상태 혹은 “고통과 배움을 위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부적절한 상태(Kitsch)” (Allende, 2007)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해당 문화권에서는 행복한 사람 역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행복 자체에 대한 설명이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많은 타인을 평가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 경험적으로 행복에 대한 믿음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믿음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원인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 행복이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믿는 이가 있는가 하면, 키와 몸무게가 유전자의 영향을 받듯이 행복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이도 있다. 이처럼 행복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믿음을 갖게 되면 행복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인간의 감정과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답을 내놓았으며 그 중 대표적인 두 입장이 서로 대립해왔다. 행복의 원인을 둘러싼 갈등은 인간 행동 전반에 대한 *자연 대 양육*(Nature vs Nurture)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인간의 심리적 특징은 선천적인 유전적 형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경험과 의도된 활동 등 후천적 요인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자연 대 양육 논쟁에서 노력과 유전자라는 두 요인은 행복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에도 적용된다. 즉, 학자들은 유전자와 개인의 노력 중 행복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날까지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행복에 대한 유전자와 개인적 노력의 영향력은 각각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유전자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행복이란 유전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키가 커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부질없고 비생산적”(Lykken & Tellegan, 1996)이라고 강조해왔다. 세로토닌 전달에 관여

하는 유전자인 5-HTTLPR(De Neve, 2011), 감각적인 쾌락과 관련된 FAAH 유전자(Minkov & Bond, 2016)와 같은 이른바 행복 유전자가 행복 수준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유전자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부 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행복이 결국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는 쾌락의 쳄바퀴(Hedonic treadmill; Brickman, Coates, & Janoff-Bulman, 1978; Diener, Lucas, & Scollon, 2006) 현상도 행복이 노력보다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행복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행복에 기여하는 적절한 행동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감사한 일을 표현하는 습관(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이나 개인의 마음가짐과 동기(Ferguson & Sheldon, 2013; Lyubomirsky & Layous, 2013) 등 개인의 선택과 노력은 실제로 더 행복해지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양쪽의 근거들을 모두 종합할 때, 두 입장 사이의 점수는 50대 50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행복 수준의 차이의 50%는 유전적 특성에 의해, 나머지 50%는 개인의 의도적 활동과 상황에 의해서 설명된다(Lyubomirsky et al., 2005).

행복의 원인을 주제로 한 의견 차이는 학자들 뿐 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일반인들도 행복의 원인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갖고 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방법론으로 현상을 이해하듯이, 평범한 사람들도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재 이론(Lay theory)을 만들기 때문에(Levy, Chiu, & Hong, 2006)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증가론자(Incremental theorist)는 성격이나 지능, 공격성 등 인간의 특성은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고정론자(Entity theorist)나 본질주의자(Essentialist)는 사람들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고 주장한다(Levy, Plaks, Hong, Chiu, & Dweck, 2001;

Haslam & Bastian, 2006). 행복의 원인에 관한 일반인들의 믿음은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Choi, Yu, Lee, & Choi, 2018)에 동의하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란, 한 사람의 행복 수준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행복에 장기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믿음이다. 위의 주장에 동의하는 본질주의자(essentialist)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유전자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지만, 이에 반대하는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는 꾸준한 노력과 습관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문화나 접하는 정보에 기초해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을 달리하는 것이다(Choi et al., 2018).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를 넘어서 행동과 판단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먼저,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은 동기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능, 성격 등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 행동, 성취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Murphy & Dweck, 2010; Levy et al., 2006).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은 행복과 관련된 동기(motivation)나 의도에 관여한다(Choi et al., 2018). 행복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기나 친절 베풀기 등 행복에 기여한다고 알려진 활동들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낮으며, 해당 활동을 실천하더라도 다른 이에 비해 행복이 증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유전자와 노력 중 행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타인의 행복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다. 누군가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행복을 본질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신의 행동보다는 유전적인 기질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Choi et al., 2018). 행복 일반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행복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믿음은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선호에도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의 행복을 귀인(attribution)하는 방식에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재 이론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각각 노력의 차이와 유전적 특성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평가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먼저,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그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믿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평가를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받을 만한 것을 누리고 있다” (공정 세상 신념; Lerner, 1965) 혹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 Mirels & Herbert, 1971)와 같은 믿음은 아름다운 외모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게 만드는 반면(Oldmeadow & Fiske, 2007; Dion & Dion, 1987), 실업자(Furnham, 1982), 가난한 사람(Harper, Newton, & Harrison, 1990), 질병을 앓는 이(Gruman & Sloan, 1983; Furnham & Procter, 1992)를 비난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증가론(Incremental theory)을 믿을수록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평가를 내린다(Ryazanov & Christenfeld, 2018). 좋은 특성을 가진 사람은 노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의 차이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은 노력을 중시하는 설명과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생물학적 기전에 의해 사람들의 차이가 결정된다는 유전적 본질주의(genetic essentialism)는 성 소수자나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Jayarathne, Ybarra, Sheldon, Brown, Feldbaum, Pfeffer, & Petty, 2006; Furnham & Chan, 2004). 사회적

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타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타인의 행복을 개인의 노력으로 귀인할 때와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할 때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위의 추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행복의 원인이 노력이라는 믿음은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선호하게 만들 것이라 예상하였다. 행복이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면 한 사람의 행복은 각 개인의 노력과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노력해온 사람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긍정적 마음가짐을 갖도록 전파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성과 고통을 확산시키는 방법만 알고 있을 뿐” (Ehrenreich, 2009)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반면, 현재 행복한지 아닌지는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과는 별개라고 믿으면(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감정의 생물학적 기원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행복을 진화의 맥락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은 개인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라고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Buss,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해 본질주의적 신념을 받아들일수록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을 더 많이 혹은 적게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추가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같은 내용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나 판단은 다르다. 예를 들어,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반응하는 양상은 달라진다. 사회가 그다지 공정하지 않다는 믿음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선호를

감소시킨다(Oldmeadow & Fiske, 2007). 이러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할 때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비록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믿더라도 여전히 자신과 지위가 유사한 사람들을 선호한다(Bettencourt, Charlton, Dorr, & Hume, 2001; Vaughan, 1978). 이상의 차이에 근거할 때 사회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의 자기 평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지위가 정당한 절차로 결정되었다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되지만, 사회가 원래 정당하지 않다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소수자의 자존감은 자신을 향한 평가 근거의 명확성(Attributional ambiguity; Crocker, Voelkl, Testa, & Major, 1991)과 정당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Rusch, Lieb, Bohus, & Corrigan, 2006; Jost & Burgess, 200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위 대신 평가자의 행복 수준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였다. 사회의 정당함이 사회적 지위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듯이, 행복의 원인은 자신의 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행복과 불행이 노력에 의한 정당한 이유라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지만 유전자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은 현재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 2개의 가설로 요약된다. 첫째,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인간의 행복은 노력이 아닌 유전자의 결과물이라는 믿음)은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 곧 행복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 행복의 본질주의적 신념이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선호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은 평가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 개요

세 편의 경험 연구는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연구 1)과 한국(연구 2 & 3)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은 참가자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성격 특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를 측정하여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과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2와 3에서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를 현실적인 의사 결정 상황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2와 3의 참가자들은 가상의 고용 상황에서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를 고용하려는 의도를 응답하였다. 연구 1과 2의 상관 관계를 기초로, 연구 3는 실험적 설계를 통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에 동의하는 정도와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태도 사이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다

개별 연구의 절차와 결과를 기술하기 전에 본 연구 전반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을 지지하는 정도로 정의되었다. 즉, 행복의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유전자가 노력보다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믿음을 뜻하고, 반대로 낮은 점수는 행복이 유전자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습관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믿음을 뜻한다.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란, 선호(preference) 혹은 편향(bias)이라는 단어가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들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 사이의 차이값으로 계산되었다.

##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을 어느 정도로 선호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유능함(competence)과 따뜻함(warmth)을 중심으로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특성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로 정의하였다.

연구 1에서는 다음의 결과를 예상하였다. 첫째, 행복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고 믿을수록, 즉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을 받아들일수록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것이다. 둘째, 참가자들의 행복의 수준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계는 다를 것이다. 참가자 중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의 성격 특성을 평가할 때 행복의 본질주의적 신념에 더 강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연구 방법

**연구 참가자 및 절차.** Amazon Mechanical Turk 사이트를 통해 101 명의 미국인 참가자 (남성 58명, 여성 42명, 무응답 1명, 평균 나이 = 32.64, SD=10.11) 가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인종은 65.3%(N=66)의 유럽계 미국인, 15.8%(N=16)의 아시아계 미국인, 3.96%(N=4)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14.9%(N=15)의 기타 인종의 분포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타인 평가에 관한 학술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 전반에 대한

짧은 소개글을 읽고 설문을 시작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들은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와 주관적 안녕감 척도에 응답한 후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차례로 등장하였으며, 제시되는 순서는 무작위적이었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았다 (Lyubomirsky & Lepper, 1999).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Some people are generally very happy. They enjoy life regardless of what is going on, getting the most out of everything).

행복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행합니다. 비록 우울하지는 않지만 항상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Some people are generally very unhappy. Although they are not depressed, they never seem as happy as they might be).

## 측정 도구

**특성 평가.** 참가자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읽고 각 대상의 성격적 특성을 총 11개의 문항을 통해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사회 전반에서 볼 때,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나 유능합니까(As viewed by society, how *competent* are the happy people)?” 와 같은 형태의 질문에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Not at all) ~ 7= 매우 많이 그렇다(Extremely)). 총 11개의 문항 중 8개는 긍정적 특성, 3개는 문항은

부정적 특성(complaining, selfish, childish; Cronbach' s  $\alpha$  행복한 사람 =.789,  $\alpha$  행복하지 않은 사람=.668)을 묘사하는 단어들이었다. 긍정적 특성의 문항들은 유능함(competent, independent, competitive, intelligent; Cronbach' s  $\alpha$  행복한 사람=.778,  $\alpha$  행복하지 않은 사람=.806)과 따뜻함(sincere, warm, tolerant, trustworthy; Cronbach's  $\alpha$  행복한 사람=.778,  $\alpha$  행복하지 않은 사람=.836)을 평가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특성 평가 점수는 긍정적 문항의 평균에서 부정적 문항의 평균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점수 사이의 차이값으로 정의되었다. 선호도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특성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 참가자가 행복의 원인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가 사용되었다(Choi et al., 2018). 참가자들은 행복의 원인과 관련된 12개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1=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Strongly Disagree), 7=매우 일치한다(Strongly Agree)).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는 3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1) 생물학적 기반(“행복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 Cronbach' s  $\alpha$  =.723), (2) 변화 불가능성(“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행복 수준은 일생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 ; Cronbach' s  $\alpha$  =.833), (3) 노력 구성주의(“누구든 노력과 연습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 ; Cronbach' s  $\alpha$  =.874).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3개의 요소 사이에는 중간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 $.33 < |r| < .64$ ,  $ps < .001$ ), 본질주의적 신념의 총점은 세 요소 사이의 합으로 계산되었다: 생물학적 기반 + 변화 불가능성 - 노력 구성주의 (전체 12 문항 신뢰도 : Cronbach' s  $\alpha$  =.865).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행

복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참가자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이라는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높은 통계적 타당도를 갖춘 개념이다(Disabato, Goodman, Kashdan, Short, & Jarden, 2015; Busseri & Sadava, 2011).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데, 인지적 측면은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를 통해 측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묻는 5개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Strongly disagree), 7=전적으로 동의한다(Strongly agree)). 감정적 측면의 행복은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atson, Clark, & Tellegen, 1988)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총 20개의 정서를 한 달의 기간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Very Slightly or Not at all), 5=매우 그렇다(Extremely)). 주관적 안녕감의 점수는 삶의 만족도 척도와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계산되었다: 표준화된 삶의 만족도 점수 + 표준화된 긍정 정서 - 표준화된 부정 정서. 주관적 안녕감 점수에서 0점은 참가자들의 평균 수준의 행복도를 나타낸다.

## 연구 결과 및 논의

**기술 통계.**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M=3.61$ ,  $SD=2.97$ ,  $t(100)=12.24$ ,  $p<.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유능하고( $M=1.48$ ,  $SD=1.64$ ,  $t(100)=9.02$ ,

$p < .001$ ), 더 따뜻하고( $M = 2.10$ ,  $SD = 1.73$ ,  $t(100) = 12.21$ ,  $p < .001$ ), 부정적인 특성은 적은 사람이라고 평가되었다( $M = -1.83$ ,  $SD = 1.79$ ,  $t(100) = -10.24$ ,  $p < .001$ ). 한편 행복의 원인에 관하여서, 참가자들은 행복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노력 구성주의)는 주장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다( $M = 5.07$ ,  $SD = 1.29$ ). 행복에 대한 생물학적 기전( $M = 3.40$ ,  $SD = 1.21$ ,  $t(100) = 8.22$ ,  $p < .001$ )이나 변화 불가능성에 대한 믿음( $M = 3.12$ ,  $SD = 1.31$ ,  $t(100) = 9.14$ ,  $p < .001$ )은 노력 구성주의에 동의하는 정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평균이 중간값(4점)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에 동의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 연구의 가설대로 행복은 유전적 기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이 행복한 사람을 평가할 때 영향을 준다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점수와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즉,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강할수록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해야 한다.

상관 분석의 결과는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행복을 본질주의적으로 설명할수록 특성 평가에서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는 낮았다( $r = -.33$ ,  $p < .001$ ). 행복을 본질주의적으로 바라보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유능함이나( $r = -.20$ ,  $p = .041$ ), 따뜻함( $r = -.29$ ,  $p = .003$ ), 부정적인 특성( $r = -.31$ ,  $p = .001$ )에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참가자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r = .23$ ,  $p < .05$ ). 정리하자면, 행복은 유전자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결정된다고 믿거나 현재 행복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이 더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정도가 낮았다(표 1).

표 1

측정 변인	평균 (SD)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1.46 (3.02)	1								
2. 변화불가능성	3.12 (1.31)	.82**	1							
3. 생물학적 기전	3.40 (1.21)	-.71**	-.33**	1						
4. 노력 구성주의	5.07 (1.29)	.85*	.64*	-.36**	1					
5. 주관적 안녕감	0.29 (2.54)	-.30**	-.19 <sup>†</sup>	.37*	-.15	1				
6. 유능함 차이값 <sup>1)</sup>	1.48 (1.64)	-.20*	-.18 <sup>†</sup>	.15	-.16	.21*	1			
7. 따뜻함 차이값 <sup>1)</sup>	2.10 (1.73)	-.29**	-.13	.13	-.41**	.20 <sup>†</sup>	.67*	1		
8. 부정적 특성 차이값 <sup>1)</sup>	-1.83 (1.79)	.31*	.15	-.22*	.37*	-.19 <sup>†</sup>	-.46**	-.61**	1	
9. 특성 평가 차이값 <sup>1)</sup>	3.61 (2.97)	-.33**	-.18 <sup>†</sup>	.21*	-.38**	.23*	.75*	.84*	-.91**	1

변인의 기술 통계량 및 변인간 상관관계

<sup>†</sup> $p < .1$ , \* $p < .05$ , \*\* $p < .01$

1) 차이값 =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 사이의 관계가 주관적 안녕감을 통제하고도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행복 수준이 낮은 참가자가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분석을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첫번째 단계(Step 1)에서는 평균 중심화된(mean-centered) 행복 본질주의 점수(EBH)와 주관적 안녕감(SWB)의 주효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예측력을 검증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Step 2)에서는 본질주의 점수와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표 2).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다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에 따라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감소하는 양상이 행복한 참가자와 행복하지 않은 참가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는 주관적 안녕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였다( $\beta = -.287$ ,  $t(98) = -2.90$ ,  $p = .005$ ). 즉, 행복을 본질주의적으로 설명하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주효과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beta = .223$ ,  $t(97) = 2.42$ ,  $p = .017$ ). 즉, 평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행복한지에 따라서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를 수 있다.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analysis; Cohen, Cohen, West, & Aiken, 2014)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참가자와 낮은 참가자를 비교할 수 있었다(그림 1).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들(-1SD SWB)은 행복을 본질주의적으로 설명할수록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EBH의 비표준화 계수 =  $-.484$ ,  $t(97) = -3.83$ ,  $p < .001$ ). 행복하지

않은 참가자 중 구성주의자(“행복은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 -1SD EBH)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4.83점(행복한 사람 2.58 vs. 행복하지 않은 사람 -2.25)의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본질주의자(“행복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 +1SD EBH)는 1.91점(행복한 사람 0.97 vs. 행복하지 않은 사람 -0.94)의 차이만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참가자(+1SD SWB)에게서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사이의 상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EBH의 비표준화 계수=-.09,  $t(97)=-.72$ ,  $p=.476$ ). 그들은 행복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믿더라도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비교적 크다고 평가했다.

### 그림 1

참가자의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EBH)과 주관적 안녕감(SWB) 수준에 따른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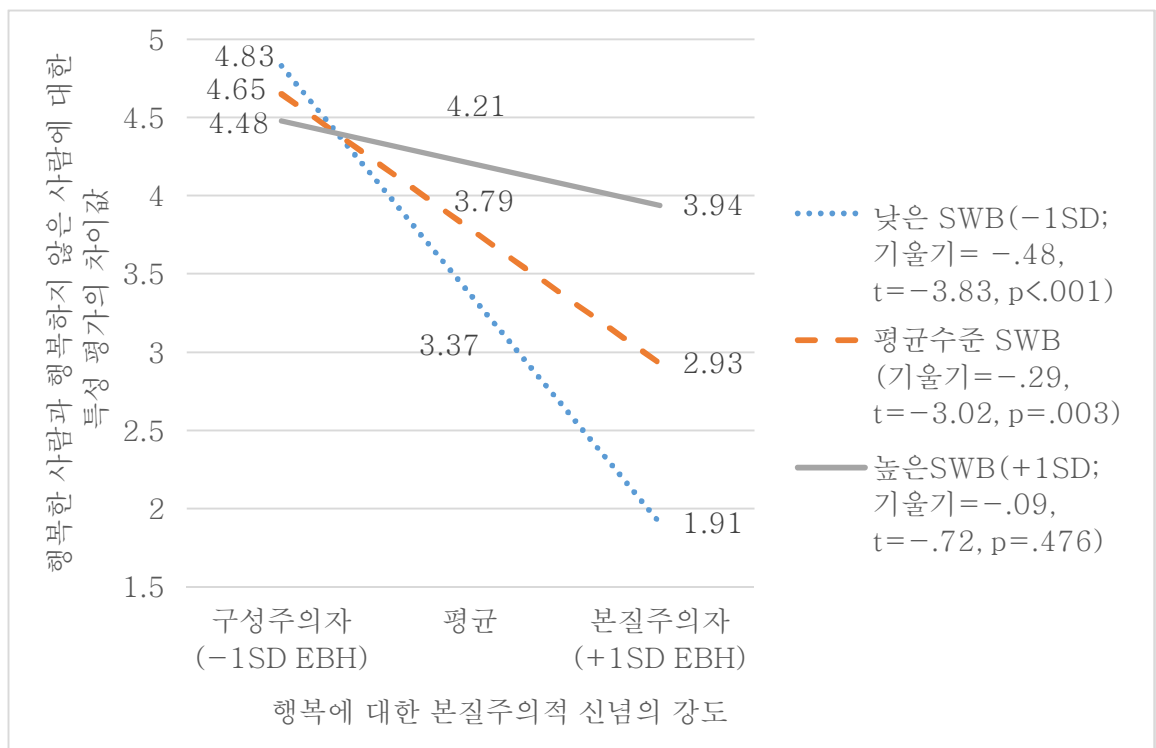


표 2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연구 1)

종속변인	예측변인	Step 1		Step 2	
		B(SE)	$\beta$	B(SE)	$\beta$
특성 평가 <sup>1)</sup>	상수	3.61(.28)		3.79(.28)	
	EBH	-.28(.10)	-.29**	-.29(.10)	-.29**
	SWB	.19(.13)	.15	.19(.13)	.14
	상호작용			.09(.04)	.22*
	$\Delta R^2$		.13**		.05*
유능함 <sup>1)</sup>	상수	1.48(.16)		1.58(.16)	
	EBH	-.09(.06)	-.16	-0.09(0.05)	-.16
	SWB	.12(.08)	.16	0.12(0.07)	.16
	상호작용			0.06(0.02)	.25*
	$\Delta R^2$		.07*		.06*
따뜻함 <sup>1)</sup>	상수	2.10(.17)		2.17(.17)	
	EBH	-.15(.06)	-.26*	-.15(.06)	-.26*
	SWB	.09(.08)	.12	.09(.08)	.12
	상호작용			.03(.02)	.14
	$\Delta R^2$		.10**		.02
부정적 특성 <sup>1)</sup>	상수	-1.83(.17)		-1.91(.17)	
	EBH	1.70(.60)	.28**	0.17(0.06)	.28**
	SWB	-.09(.08)	-.11	-0.09(0.08)	-.11
	상호작용			-0.05(0.02)	-.19*
	$\Delta R^2$		.11**		.04*

†  $p < .1$ , \*  $p < .05$ , \*\*  $p < .01$ ,

<sup>1)</sup> 각 종속변인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의 차이값

연구 1은 행복의 원인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면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노력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행복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본질주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과 행

복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 때,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은 참가자의 행복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들이 행복의 유전적 요인에 동의하면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가 낮았지만, 주관적 만족감이 높은 참가자들은 행복을 본질주의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여전히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가진 사람들에 비해 지위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Bettencourt, Charlton, Dorr, & Hume, 2001; Jost & Burgess, 2000).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아니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가 자신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러한 추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연구 1의 결과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예상대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며 행복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낮았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본질주의적 신념을 믿으면 행복한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려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먼저, 추상적인 태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LaPiere, 1934; Wicker, 1969). 따라서 행복을 본질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행복한 사람의 성격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행복한 사람을 여전히 강하게 선호할 수도 있다. 둘째, 미국에서는 다른 문화권에 비해 고각성(high arousal)의 긍정적 감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고요함이나 평안함과 같은 저각성 감정(Low arousal emotion)을 선호한다(Kitayama & Markus, 2000; Uchida & Ogiwara, 2012; Tsai, 2007). 이를 고려할 때,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가 낮기 때문에 본질주의적 신념과의 행복한 사

람에 대한 평가 사이에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 2에서는 동양 문화권의 참가자들이 현실적인 평가를 내릴 때 행복에 대한 유전적 본질주의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 연구 2

연구 2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현실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취업이나 연봉 수준에서의 혜택을 받는다 (Cropanzano & Wright, 1999; Staw et al., 199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 2에서는 가상의 고용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을 평가할 때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연구 1에서 행복한 사람은 더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복한 사람을 고용 상황에서 선호되는 이유는 행복하면 실제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원자의 실제 능력을 임의대로 유추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지원자의 유능함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때 지원자의 점수(높음 vs. 낮음)와 행복(행복함 vs. 행복하지 않음)에 따라 2 X 2의 네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행복과 유능함 중 어떤 정보가 고용 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한 정보인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가지 결과를 예측하였다. 첫째, 가상의 고용 상황에서 행복한 지원자를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에 비해 더 좋게 평가하는 정도는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다를 것이다. 평가하는 이가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에 동의할수록 행복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둘째,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은 행복도가 낮은 평가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 방법

**연구 참가자.** 265명의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남성 136명, 여성 129명, 평균 나이=22.00, SD=3.05)이 “타인에 대한 인상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학내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연구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확인하고 연구 참여를 예약하였다. 참가자들은 지정된 날짜에 실험실에 방문하여 연구자의 구체적인 안내를 듣고 연구 설명서 및 참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을 시작하였다.

**연구 절차.** 모든 연구 절차는 컴퓨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척도와 주관적 안녕감 척도에 응답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가상의 고용 평가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자신이 신입사원을 채용 중인 한 회사의 CEO라고 가정하고 두 명의 지원자를 평가하였다. 각 지원자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정보가 제시되었다. 먼저, 지원자의 업무 관련 능력을 유추할 수 있는 학점,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점수, 입사 시험 점수가 제시되었다. 둘째, (가상의) 회사에서 모든 지원자들에게 심리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가정하고 각 지원자에 대한 심리 검사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이 평가한 2명의 지원자 중 첫 번째 지원자는 평균 수준의 유능함(학점: 3.64/4.3, TOEIC: 810/990, 입사 시험: 80/100)과 평범한 성격(“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모난 곳 없이 무난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성격적 특징은 없지만, 그렇다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곳 또한 없습니다”)의 소유자로 묘사되었다. 두 번째로 평가하는 지원자의 경우 행복도(행복함 vs. 행복하지 않음) X 유능함(높은 점수 vs. 낮은 점수)의 4가지 조합 중에서 한 명의 프로필이 제시되었다. 즉, 참가자는 행복하면서 유능한 사람, 행복하지만 유능하지 않은 사람, 행복하지는 않지만 유능한 사람, 행복하지 않으면서 유능하지 않은 사람의 4명 중 무작위로 한 사람의 정보를 읽고 고용과 관련된 평가를 내렸다. 행복과 관련된 정보가 제시된 두 번째 지원자에 대한 평가만이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행복하면서 점수가 높은 지원자*는, “학점은 4.3 만점에서 4.07점, TOEIC 점수는 970점, 입사시험 점수는 97점”이었으며

해당 지원자의 심리 검사 결과 심리 전문가가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우 행복합니다. 대체로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의 삶을 즐기는 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정보가 제시되었다. 반면 *행복하지 않으면서 유능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학점 3.12, TOEIC 점수 680점, 입사 시험 71점” 이라는 정보와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울하지는 않지만 항상 자신이 바라는 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주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 측정 도구

**조작 점검 (Manipulation Check).** 가상의 지원자에 대한 설명을 읽고 참가자들이 해당 지원자가 어느 정도로 행복 혹은 유능하다고 평가했는지 확인하였다. 참가자는 지원자가 얼마나 유능해 보이는지 (Cronbach's  $\alpha=.908$ , 연구 1에서의 유능함 문항)와 행복해 보이는지 (행복하다, 우울하다, 기쁘다; Cronbach's  $\alpha=.925$ )를 7점 척도에서 평가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고용 관련 평가.** 두 가지의 지표를 통해 참가자가 지원자를 고용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행복한 지원자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선호하는 정도를 계산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은 각 지원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관한 4개의 문항을 읽고 그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 “지원자는 회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일 것이다”, “지원자는 회사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것이다”, “지원자는 어느 회사든지 탐낼만한 인재다” 라는 문항이 제시되었다(Cronbach's  $\alpha=.885$ ). 지원자에 대한



참가자의 고용 의도의 평균은 4.18점(SD=1.38)이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지원자가 만약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은 만원 단위로 숫자를 직접 입력하였으며, 예를 들어 3,000만원이 지원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000을 입력하였다. 참가자들이 지불하고자 한 연봉 액수의 평균은 3,619만원(SD=1,049만원)이었다. 일반적으로 돈의 액수와 관련된 측정치는 분포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로그 변환을 한 통계치를 사용하지만, 본 응답의 분포는 크게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입력한 액수를 그대로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로그 변환을 한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과 주관적 안녕감.** 연구 1에서 사용되었던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참가자의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였다. 행복 본질주의의 총점(M=.76, SD= 2.76, Cronbach' s  $\alpha$ =.866)은 3개의 하위 요인인 생물학적 기반(M=3.11, SD=1.33, Cronbach' s  $\alpha$ =.860), 노력 구성주의(M=5.27, SD=1.14, Cronbach' s  $\alpha$ =.893) 그리고 변화 불가능성(M=2.91, SD=1.20, Cronbach' s  $\alpha$ =.852) 사이의 산술로 계산되었다. 참가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연구 1과 동일하게 삶의 만족감 척도와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분석 방법.** 연구 1은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를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의 차이값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연구 2와 3에서는 행복하거나 혹은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중 한 명만 평가하였기 때문에 각 참가자별 선호도 점수를 계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 2와 3에서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는 행복한 사람을 평가한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평가한 집단 사이의 평균의 차이로 정의되었다. 예를 들어, 행복한 지원자를 평가한 집단의 점수가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한 집단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면,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행복한 사람을 더 선호했으며 평균의 차이만큼 행복한 사람을 선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 때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영향은 본질주의와 지원자의 행복 여부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검증하였다. 상호작용이 유의미하다면 본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변함에 따라 행복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지원자가 행복한 사람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인(0=행복하지 않은 사람, 1=행복한 사람)이 고용 평가에 미치는 단순 효과(simple effect)나 단순 기울기(simple slope)의 수준을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 연구 결과 및 논의

**지원자에 대한 고용 의도.** 참가자들은 더 높은 학점, TOEIC, 입사 시험 성적을 보유한 가상의 지원자(M=5.58, SD=.73)를 낮은 점수(M=3.66, SD=1.01)를 가진 지원자에 비해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였다( $t(235.83)=17.60, p<.001$ ). 마찬가지로 심리 검사 결과 행복하다고 묘사된 지원자(M=5.48, SD=.96)를 행복하지 않은 사람(M=2.77, SD=.79)으로 묘사된 지원자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t(246.436)=24.92, p<.001$ ). 흥미롭게도, 행복한 지원자(M=4.81, SD=1.00)는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에 비해 더 행복해 보일 뿐 아니라 더 유능하다고 평가되었다(행복한 사람의 유능함 4.81 vs.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유능함 4.45;  $t(236.787)=2.30, p=.023$ ). 반면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었다(유능한 지원자 3.97 vs. 유능하지 않은 지원자 4.21,  $t(256.97)=1.20, p=.233$ ). 이러한 결과는 행복한 사람을 더 유능하다고 평가한 연구 1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지원자의 특성에 따라 고용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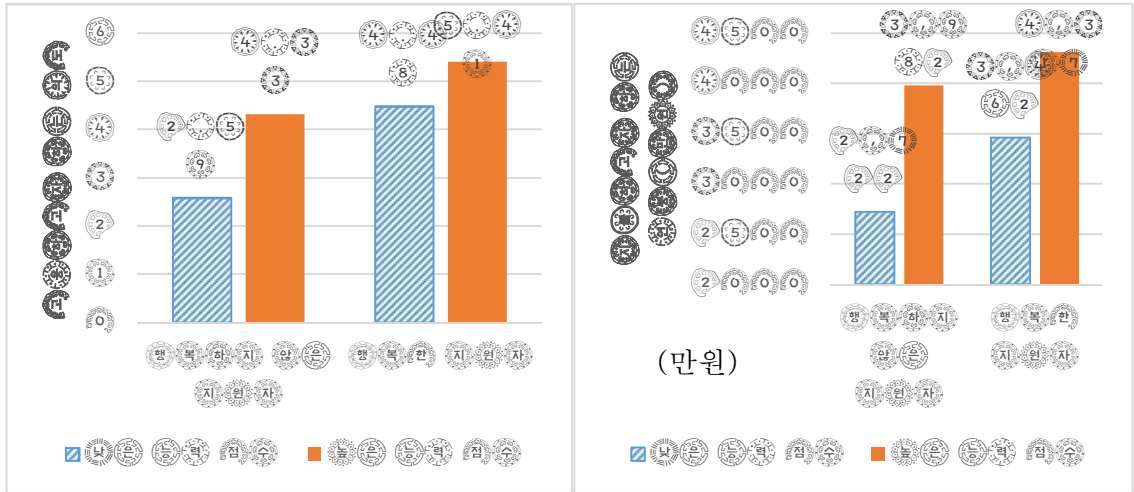
해보았다. 참가자들은 행복한 지원자를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보다 고용 의도에서 1.51점(행복한 사람 4.96 vs. 행복하지 않은 사람 3.45)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t(257.536)=10.61, p<.001$ ), 행복한 사람에게 550만원(행복한 사람 3,902만원 vs. 행복하지 않은 사람 3,352만원)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t(262)=4.41, p<.001$ ). 유능한 지원자도 유능하지 않은 지원자에 비해서 고용 의도에서 더 좋은 평가와(유능한 지원자 4.86 vs. 유능하지 않은 지원자 3.48,  $t(246.90)=9.38, p<.001$ ) 더 높은 연봉 수준을 받았다(유능한 지원자 4,147만원 vs. 유능하지 않은 지원자 3,075만원,  $t(256.39)=9.67, p<.001$ ). 즉, 행복하다는 정보와 유능하다는 정보는 고용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불러오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행복과 유능함 중 고용 평가에서 어느 정보가 더 중요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의 유능함(0=낮은 점수, 1=높은 점수)과 행복도(0=행복하지 않은 사람, 1=행복한 사람)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자의 유능함을 통제하고도 행복하다는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더 높은 고용 의도( $\beta=.54, t(262)=12.74, p<.001$ )와 더 높은 연봉 수준을 예측하였다( $\beta=.26, t(261)=5.02, p<.001$ ). 두 변인의 표준화 회귀 계수( $\beta$ )를 비교할 때, 고용 의도를 결정할 때 행복도의 영향력은 유능함의 지표가 되는 점수의 영향력과 거의 유사하였다( $\beta_{\text{행복}}=.54$  vs.  $\beta_{\text{유능함}}=.49$ ). 그림 2에 나타나듯이 행복하지만 점수가 낮은 지원자( $M=4.48, SD=.97$ )는 행복하지는 않지만 높은 점수를 가진 지원자와 거의 대등하게 평가되었다( $M=4.33, SD=.94$ ). 즉, 고용 상황에서 행복하면 능력 상의 부족함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원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은 고용 의도에 있어서 4.3 만점에서 약 1점의 학점(4.07 vs. 3.12), 300점의 TOEIC 점수(970 vs. 680)에 상응하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봉의 액수에 대해서도 행복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었으나 행복보다는 유능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_{\text{행복}}=.26$  vs.  $\beta_{\text{유능함}}=.51$ ).

## 그림 2

지원자의 유능함 점수와 행복도에 따른 고용 의도와 연봉 액수



### 행복 본질주의가 행복한 지원자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에서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행복은 대체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이 강하면 행복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낮았다. 행복 본질주의의 영향이 고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 평가와 연봉 수준을 예측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원자의 행복 수준(0=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1=행복한 지원자), 평가자(참가자)의 행복 본질주의 점수,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회귀식의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였다(표 3에서 이원 상호작용).

분석 결과, 주효과 중에서는 지원자의 행복 여부만이 고용 의도( $\beta=.56, t(261)=10.81, p<.001$ )와 연봉 수준( $\beta=.27, t(260)=4.34, p<.001$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즉, 참가자들은 고용하려는 의도와 연봉 수준에서 행복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주

효과는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조절되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용 의도( $\beta = -.06$ ,  $t(261) = -.75$ ,  $p = .452$ )와 연봉을 지불할 때( $\beta = -.06$ ,  $t(260) = -.69$ ,  $p = .490$ )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총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행복 본질주의의 하위 요소인 노력 구성주의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용 의도의  $\beta = .70$ ,  $t(261) = 2.91$ ,  $p = .004$ ; 연봉 수준의  $\beta = .58$ ,  $t(260) = 2.06$ ,  $p = .041$ ). 이 결과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이전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 정도가 행복한 지원자에게 고용 상황에서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 관계는 지원자의 유능함에 대한 평가를 통제해도 유지되었다(고용 의도의  $\beta = .36$ ,  $t(259) = 2.21$ ,  $p = .028$ ; 연봉 수준의  $\beta = .31$ ,  $t(258) = 1.25$ ,  $p = .211$ ). 이상의 결과는 행복이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면 고용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을 더 선호하지만, 행복과 노력은 무관하다고 믿으면 행복한 지원자와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를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약함을 보여준다.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참가자들의 행복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연구 1에서는 참가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때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도 참가자의 행복 수준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 사이의 삼원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으며, 고용 의도( $\beta = .20$ ,  $t(257) = 2.41$ ,  $p = .017$ )와 연봉 수준( $\beta = .25$ ,  $t(256) = 2.54$ ,  $p = .012$ )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참가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따라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행복한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3

예측변인	고용 의도				연봉 수준			
	이원 상호작용		삼원 상호작용		이원 상호작용		삼원 상호작용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상수	3.47(.10)		3.43(.10)		3342(88)		3311(91)	
지원자 행복 <sup>1)</sup>	1.57(.15)	.57**	1.66(.15)	.60**	571(131)	.27**	660(137)	.32**
EBH	-.04(.04)	-.08	-.02(.04)	-.04	22(32)	.06	34(34)	.09
지원자 행복 <sup>1)</sup> *EBH	-.04(.05)	-.06	-.04(.06)	-.06	-32(46)	-.06	-32(49)	-.06
SWB			-.02(.05)	-.04			-21(40)	-.04
지원자 행복 <sup>1)</sup> *SWB			.07(.07)	.08			49(62)	.07
SWB*EBH			-.04(.02)	-.17*			-25(15)	-.16 <sup>†</sup>
삼원 상호작용			.05(.02)	.20*			51(20)	.25*

고용 관련 평가를 예측하는 회귀분석 (연구 2)

<sup>†</sup>  $p < .1$ , \*  $p < .05$ , \*\*  $p < .01$

<sup>1)</sup> 0 =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1 = 행복한 지원자

PROCESS 프로그램의 조건부 영향력 분석(Conditional effect analysis; Hayes, 2017)을 통해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1SD SWB)의 고용 평가( $t(257) = -1.97, p = .050$ )와 연봉 수준 평가( $t(256) = 2.00, p = .047$ )가 본질주의적 신념의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그림 3).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 Cohen et al., 2014)을 통해 확인해보면, 행복하지 않은 구성주의자(-1SD EBH)들은 행복한 사람에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용 평가에서는 1.83점(행복한 지원자 5.20 vs.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3.37,  $t(257) = 5.22, p < .001$ ) 더 높은 점수를 매겼고, 846만원의 연봉을 더 지불하고자 하였다(행복한 지원자 4,022만원 vs.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3,176만원,  $t(257) = 2.73, p = .007$ ).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본질주의자(+1SD EBH)는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가 고용 평가에서는 0.93점에 그쳤고(행복한 지원자 3.68 vs.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4.90,  $t(257)=3.49$ ,  $p<.001$ ), 연봉은 40만원을 더 제공하겠다고 평가했다(행복한 지원자 3,757만원 vs.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3,717만원,  $t(256)=.17$ ,  $p=.867$ ). 40만원의 연봉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아니었으므로 행복하지 않은 본질주의자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연봉을 제공하기 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행복 수준이 낮더라도 행복이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면 행복한 지원자를 선호했지만, 행복이 유전적 결과일 뿐이라고 믿으면 행복한 지원자에게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에 비해 좋은 평가나 높은 연봉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낮았다.

반면,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참가자(+1SD SWB)의 경우 본질주의적 신념의 정도는 행복한 지원자를 선호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용 평가  $t(257)=1.20$ ,  $p=.230$ ; 연봉 수준  $t(256)=1.37$ ,  $p=.172$ ). 주관적 안녕감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행복의 원인이 노력인지 유전자인지와는 상관없이 행복한 지원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종합하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참가자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행복하지 않은 참가자일수록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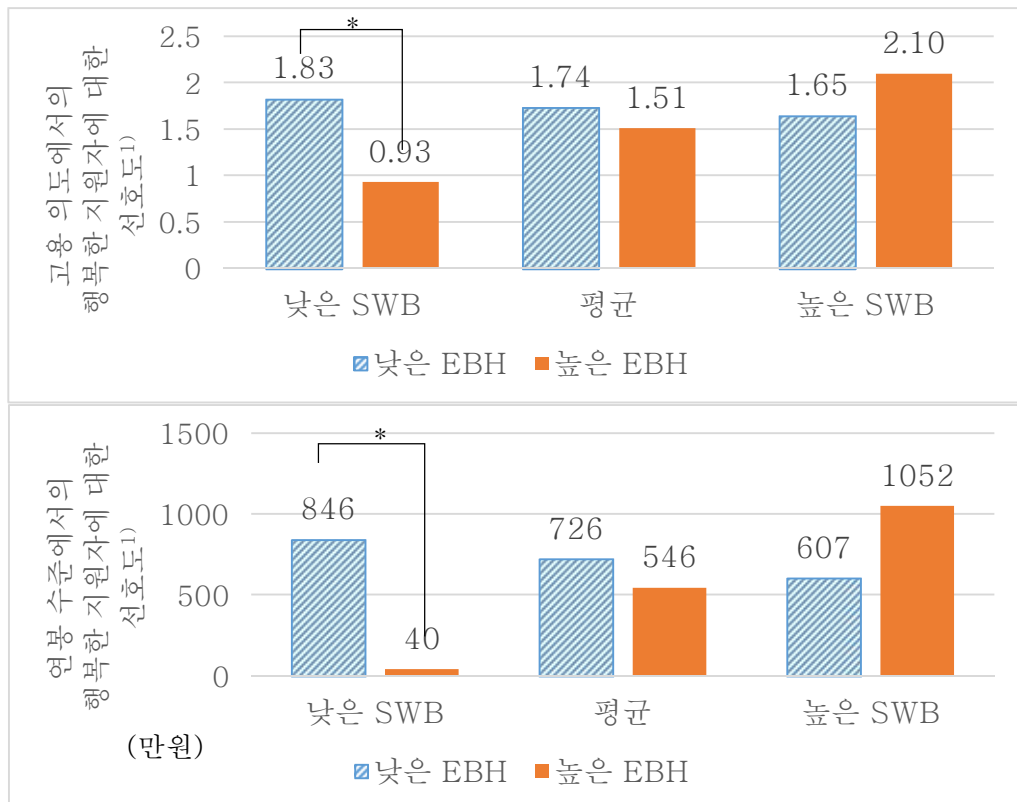
연구 1과 2의 결과는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여준다. 행복은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이 적었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참가자들에게서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두 연구의 결과는 일반인들이 행복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이 자신의 행동 만이 아니라(Choi et al., 2018) 타인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복

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을 추론할 때(연구 1)와 고용이나 연봉 지급과 같은 현실적인 결정(연구 2)을 내릴 때 행복의 원인이 노력이라고 믿는지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라고 믿는지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두 편의 상관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3에서는 실험적 설계를 통해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 그림 3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EBH)과 주관적 안녕감(SWB)에 따라 행복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정도



\* $p < .05$

<sup>1)</sup> 선호도 = 행복한 지원자와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 점수의 차이



## 연구 3

연구 3은 실험적인 조작을 통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 사이의 인과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한 사람의 내재 이론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 특정한 내용의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활성화시키는 실험적 조작은 가능하다(e.g. Haslam et al., 2006; Levy, Chiu, & Hong, 2006).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상의 기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가자의 신념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행복의 원인을 주제로 다른 가상의 기사를 제시하였다. 연구 1과 2의 결과를 고려할 때, 행복의 핵심 원인은 노력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유전자라고 설명하는 기사를 읽은 집단 사이에는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으로, 행복은 유전적인 기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을 때 다른 조건에 비해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연구 방법

**연구 참가자 및 절차.** 심리학 교양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150명의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남성 72명, 여성 78명, 평균 나이=20.31, SD=1.72)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행복에 대한 내재 이론과 타인에 대한 판단” 연구에 관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의 대가로 수강 과목 이수를 위한 크레딧을 지급받았다. 참가자들은 희망하는 시간에 실험실에 방문하였으며 연구 진행자는 연구 전반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참가자들은 서면으로 제시된 연구 설명서 및 참가 동의서를 읽고 서명한 후 설문을 시작하였다.

참가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이후 기사 읽기 과제와 고용 평가 과제를 실시하였다.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을 실험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기사를 읽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이 연구의 실제 목적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실제와는 다른 설명을 제시하였는데, 읽기 과제의 목적은 기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과학적인 정보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다. 참가자들에게는 세 가지 중 하나의 기사가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노력 기사(N=60), 타고난 유전적 기질이 한 사람의 행복감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유전자 기사(N=52), 행복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람들 사이에 순위를 매기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제 조건 기사(N=38) 중 하나가 제시되었다. 각 기사의 표제와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유전자 기사:

행복 석학 교수, “행복은 노력 아닌 유전 … DNA가 행복을 결정한다”

“행복의 40%는 노력, 환경의 영향은 10%에 불과하고, 무려 50%의 행복은 각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20년째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 긍정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A교수는 지난 7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심리학회 컨퍼런스에서 “행복의 가장 큰 결정 변인은 유전자(DNA)” 라고 정의했다.

#### 노력 기사:

행복 석학 교수, “행복은 유전 아닌 습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진다”

"행복의 50%는 유전, 10%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40%는 연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20년째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 긍정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A교수는 지난 7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심리학회 컨퍼런스에서 "행복의 유전과 환경의 영향은 노력과 연습에 의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통제 조건 기사:

행복 석학 교수, "행복이란 주관적 경험 ... 단일 측정치의 행복 순위 비교는 위험"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혹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관적 경험을 행복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20년째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 긍정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A교수는 지난 7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심리학회 컨퍼런스에서 행복 연구분야의 추세에 대해 "주관적 경험을 행복의 본질로 정의하며, 자기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하는 데는 대체로 학자들 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주관적 경험이 행복의 요소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이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사 내용이 제시된 페이지는 최소한 1분이 지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기사에 따라 참가자들의 믿음이 영향을 받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기사를 읽은 다음 페이지에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가 제시되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평가 과제를 통해 가상의 고용 상황에서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했다. 연구 3에서 제시된 지원자들

은 유능함에 관련된 점수는 동일한 상태로(GPA 4.3점 만점에 3.79, TOEIC 890점, 입사 시험 성적 85점) 행복에 대한 묘사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참가자는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두 명의 지원자 중 한 사람에게 대해서 평가하였다. 평가 과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앞서 읽었던 기사 내용의 난이도, 신뢰성,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모든 실험 절차를 마친 후, 연구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연구의 실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기사는 연구 목적으로 제작된 내용임을 안내하였다. 자신의 응답을 철회하겠다고 표현하거나 연구 도중 불편함을 표현한 참가자는 없었다.

## 측정도구

**지원자에 대한 평가.** 가상의 지원자에 대한 프로필을 읽고 나서 참가자들은 각 지원자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연구 1에서 사용된 성격 특성을 평가하는 문항과 연구 2에서 제시된 고용 의도 및 연봉 수준에 대한 문항을 모두 제시하였다.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는 각 평가 항목에서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균 차이로 정의되었다.

먼저, 지원자의 성격 특성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연구 1에서 사용되었던 유능함( $M=4.90$ ,  $SD=.84$ , Cronbach's  $\alpha=.798$ ), 따뜻함( $M=4.19$ ,  $SD=1.04$ , Cronbach's  $\alpha=.862$ ), 부정적 특성( $M=3.18$ ,  $SD=1.06$ , Cronbach's  $\alpha=.569$ )을 평가하는 11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특성이 지원자를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하였다. 특성 평가 점수( $M=1.37$   $SD=1.55$ )는 연구 1과 동일하게 긍정적 특성(유능함, 따뜻함)의 평균에서 부정적 특성의 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지원자를 고용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4개의 문항

(M=4.51, SD=1.27, Cronbach' s  $\alpha$ =.903)과 각 지원자에게 제공하기 적합한 연봉 수준을 묻는 주관식 문항(M=3,902만원, SD=1,334만원)을 통해 지원자에 대한 고용 평가를 측정하였다. 연봉 수준에 대한 응답을 로그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로그 변환을 한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미함에 차이는 없었다.

**조작 점검.** 평가 과제에서 참가자들이 가상의 지원자들을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2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지원자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하였다(Cronbach' s  $\alpha$ =.947). 가상의 기사를 통한 실험적 조작이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M=.74, SD=.28, Cronbach' s  $\alpha$ =.904)가 제시되었다. 유전자 기사를 읽은 경우에는 행복 본질주의 점수가 다른 조건에 비해서 더 높고, 반대로 노력 기사를 읽은 참가자의 점수는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기사에 대한 평가.** 참가자들은 읽기 과제에서 자신이 읽었던 기사의 내용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는지(1=전혀 어렵지 않았다~ 7=매우 많이 어려웠다; M=1.89, SD=1.23), 기사 내용이 얼마나 믿을만했는지(1=전혀 믿을만하지 않았다~ 7=매우 많이 믿을만했다; M=4.27, SD=1.35), 기사에서 전달된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전적으로 동의한다; M=4.71, SD=1.58)를 각각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 연구 결과

**조작 점검.** 행복의 원인을 주제로 한 기사들은 행복의 원인에 대한 참가자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읽었던 기사의 종류에

따라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2, 147)=11.22, p<.001$ ).

표 4와 같이 유전자가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내용의 유전자 기사( $M=2.14, SD=2.70$ )를 읽은 참가자들은 노력 기사( $M=0.03, SD=2.55$ )와 통제 조건 기사( $M=-0.04, SD=2.66$ )를 읽은 집단에 비해 행복 본질주의 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 $t_s>3.80, p_s<.001$ ). 다시 말해, 유전자 기사의 내용은 참가자들이 행복은 유전적 기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도록 영향을 주었다. 예상과는 달리, 노력을 강조한 기사를 읽은 참가자와 통제 조건의 기사를 읽은 집단 사이에는 내재 이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t(96)=.120, p=.905$ ). 행복이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정보는 참가자의 신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상의 지원자의 행복도의 경우, 연구에서 의도한대로 행복한 사람으로 묘사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제시된 지원자에 비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었다(행복한 사람 4.46 vs. 행복하지 않은 사람 3.42;  $t(137.42)=11.82, p<.001$ ).

**표 4**

기사 종류	N	EBH 총점	생물학적 기전	변화 불가능성	노력 구성주의
노력	60	0.03(2.55)	3.13(1.22)	2.61(1.06)	5.71(0.87)
통제 조건	38	-0.04(2.66)	2.76(1.21)	2.84(1.18)	5.64(0.85)
유전자	52	2.14(2.7)	3.86(1.25)	3.5(1.14)	5.22(0.81)

기사에 따른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EBH) 점수 평균(SD)

기사와 관련된 변인. 참가자들이 응답한 기사의 이해의 난이

도( $F(2,147)=6.59, p=.002$ )와 신뢰하는 정도( $F(2, 147)=15.59, p<.001$ ),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F(2,147)=47.50, p<.001$ )는 기사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기사 내용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유전자 기사( $M=1.79, SD=1.12$ )와 노력 기사( $M=1.60, SD=1.01$ )보다 통제 조건 기사( $M=2.47, SD=1.49$ )의 내용이 더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유전자 기사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믿을만하고( $M=3.63, SD=1.25$ )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 $M=3.40, SD=1.39$ )으로 평가된 반면, 노력 기사는 신뢰할만하고( $M=4.30, SD=1.36$ ) 받아들일만한 주장( $M=5.17, SD=1.29$ )으로 인식되었다. 노력 기사와 유전자 기사를 비교하면, 두 기사의 난이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노력 기사가 유전자 기사에 비해 더 신뢰할 만하고 동의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사에 대한 세 가지 평가는 이후 분석에서 모두 통제되었다.

**내재 이론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 본 연구는 행복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믿음이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평가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서로 다른 기사를 통해서 다른 믿음을 갖게 된 참가자 사이에서는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측과 동시에 기사를 통한 조작의 영향이 평가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와 행복하지 않을 때 다른 지 검증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사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변수는 0=노력 혹은 통제 조건 기사(행복 본질주의 점수가 낮은 조건), 1=유전자 기사 (행복 본질주의 점수가 높은 조건)으로 정의되었다. 유전자 기사는 다른 두 기사와 행복 본질주의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노력 기사와 통제 조건 기사를 읽은 참가자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코딩을 통해 유전자 기사를 읽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참가자 사이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할 수 있었다. 통제 조건을 제외하고 노력 조건과 유전자 조건의 두 조건 사이의 비교는 가설에 더 부합하는 방향의 통계적 결과를 보였으나, 표본의 크기가 감소하여 통계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지원자의 행복도(0=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1=행복한 지원자), 기사의 종류, 참가자의 주관적 안녕감과 세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예측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 결과, 지원자의 행복의 주효과가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행복한 지원자가 특성 평가와 고용 의도, 연봉 수준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beta s > .34$ ,  $t_s = 3.53$ ,  $p_s < .001$ ). 세 가지 측정치 모두에서 기사의 종류와 지원자의 행복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beta| s < .11$ ,  $t_s < .96$ ,  $p_s > .341$ ), 이는 서로 다른 기사의 내용을 읽었다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추세를 살펴보면 유전자 기사를 읽은 집단에서 행복한 지원자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력 혹은 통제 집단 기사를 읽은 참가자들은 행복한 사람에게 905만원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하였으나(행복한 지원자 4,425만원 vs.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3,520만원,  $t(139) = 3.53$ ,  $p < .001$ ), 유전자 기사를 읽은 참가자들의 경우 그 차이가 484만원으로 감소하였다(행복한 지원자 4,024만원 vs.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3,540만원,  $t(139) = 1.36$ ,  $p = .177$ ).



표 5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예측한 회귀 분석의 결과

예측변인	특성 평가		고용 의도		연봉 수준	
	B(SE)	$\beta$	B(SE)	$\beta$	B(SE)	$\beta$
상수	.16		3.50		2834	
지원자의 행복 <sup>1)</sup>	2.12	.68**	1.78	.70**	905	.34**
기사의 종류	-.19	-.06	-.35	-.13	19	.01
주관적 안녕감	-.09	-.13	-.12	-.22*	65	.11
지원자 행복 <sup>1)</sup> * 기사 종류	-.18	-.04	.15	.04	-420	-.11
지원자 행복 <sup>1)</sup> * SWB	.07	.08	.09	.12	-122	-.16
기사 종류 * SWB	-.03	-.03	.03	.03	-206	-.20
삼원 상호작용	.34	.20 <sup>†</sup>	.18	.13	444	.30*

\*기사 내용의 난이도, 신뢰도, 동의에 대한 평가는 통제하였음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sup>1)</sup> 0 =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1 = 행복한 지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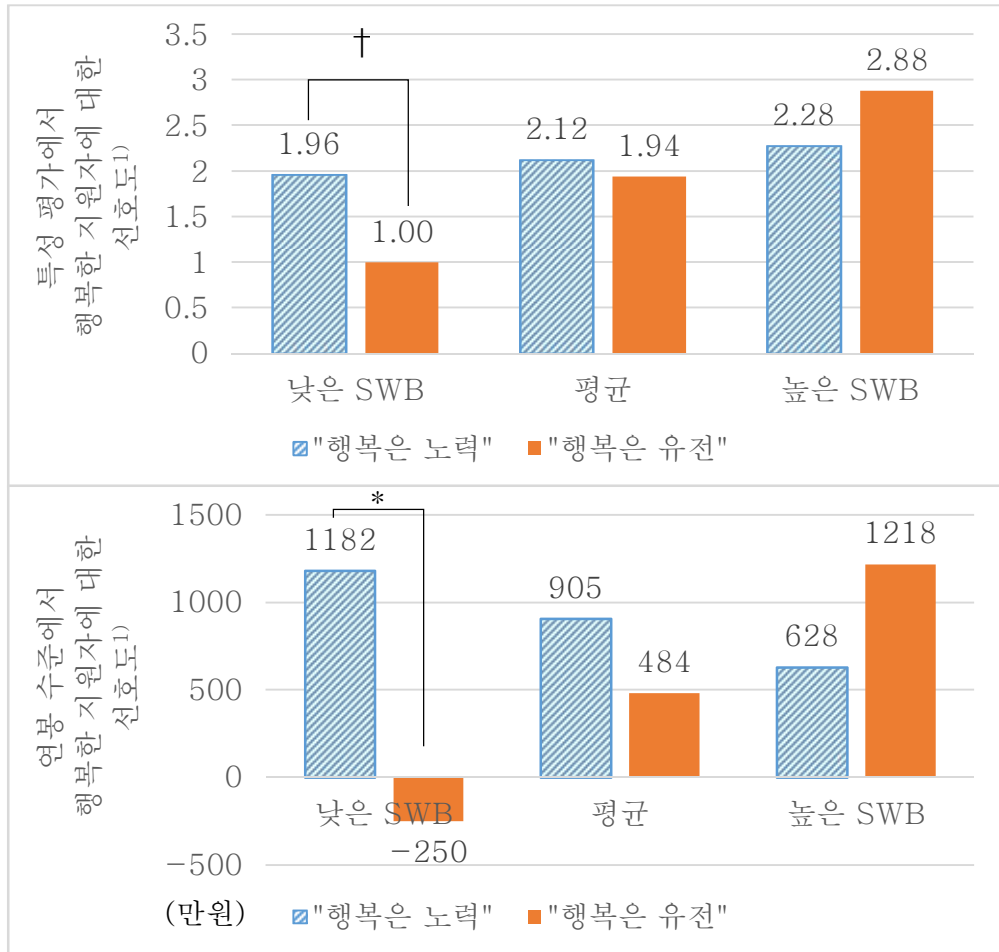
비록 기사의 종류 자체가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 1과 2를 고려해볼 때 특정한 참가자 집단, 특히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집단은 기사의 내용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 지원자의 행복 수준 X 기사의 종류 X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삼원 상호작용이 특성 평가( $\beta = .20$ ,  $t(139) = 1.93$ ,  $p = .055$ )와 연봉 수준 평가( $\beta = .30$ ,  $t(139) = 2.26$ ,  $p = .026$ )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참가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따라서 기사 내용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고용 의도에 있어서는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13$ ,  $t(139) = 1.33$ ,  $p = .184$ ).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참가자 집단(-1SD SWB)에서는 유전자 기사를 읽었을 때 행복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 평가(기사 종류의 효과 =  $-.96$ ,  $t(139) = -1.71$ ,  $p = .089$ )와 적합하다고 생각한 연봉의 액수가 감소했다(기사 종류의 효과 =  $-1431$ ,

$t(139)=-2.31, p=.022$ ). 주관적 안녕감이 낮으면서 “행복은 노력” 기사나 통제 조건의 기사를 읽은 참가자들은 특성 평가에서는 1.96점(행복한 사람 2.61 vs. 행복하지 않은 사람 0.65점,  $t(139)=5.87, p<.001$ ), 연봉 수준에서는 1,182만원(행복한 사람 4,554만원 vs. 행복하지 않은 사람 3,372만원,  $t(139)=3.19, p=.002$ )만큼 행복한 지원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행복은 유전” 기사를 읽은 참가자의 경우 행복한 지원자와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사이의 특성 평가의 차이는 1.00점(행복한 지원자 1.53 vs.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 0.53,  $t(139)=2.20, p=.029$ ), 연봉 수준의 차이는 250만원(행복한 사람 3,611만원 vs. 행복하지 않은 사람 3,861만원,  $t(139)=-.49, p=.622$ )으로 감소하였다. 즉, 행복에 대한 유전자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기사가 행복하지 않은 참가자의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참가자는 읽었던 기사에 따라 행복한 지원자를 선호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다( $ts<1.05, ps>.294$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행복을 본질주의적으로 보는 관점은 평가하는 이가 별로 행복하지 않을 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평균 이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기사 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평가하는 사람의 행복 수준이 낮을수록 행복한 지원자를 평가할 때 행복의 원인이 노력인지 유전자인지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림 4**

기사 종류와 참가자의 주관적 안녕감(SWB)에 따라 행복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정도



†  $p < .10$ , \*  $p < .05$

<sup>1)</sup> 선호도 = 행복한 지원자와 행복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 차이

## 논의

연구 3은 실험적인 조작을 통해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록 서로 다른 기사를 읽은 집단 사이에서 행복한 지원자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집단에서 행복한 지원자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자신의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읽었던 기사의 종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연구 1과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행복 수준이 낮은 참가자들이 유전적 결정론을 받아들였을 때 행복한 지원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실험적인 방법론을 통해 확인된 이상의 결과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행복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인과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도 본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부분 중 하나이다. 제시된 기사 중 유전자가 행복에 중요하다는 정보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을 강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으나, 노력의 영향력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는 통제 조건과 비교할 때 사람들의 믿음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 결과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기사의 내용 중 의도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노력 기사를 통한 조작이 예상보다 성공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력 기사에서 “행복의 50%는 유전, 10%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40%는 연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라는 문구 때문에 노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다. 둘째, 만약 기사를 통한 조작이 성공적이었다면 이 결과는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념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즉, 외부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노력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노력 기사의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노력 기사와 유전자

기사를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한국과 미국 사람들 모두 행복이 노력에 의해 변화가능하다는 주장에 더 많이 동의하였다는 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Choi et al., 2018).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기사의 내용의 영향력을 다시 비교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두 해석 중 무엇이 타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종합 논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선호한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행복한 직원은 더 일을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회의 부조리에 둔감하다거나 지적으로 명철하지 않다는 등의 냉소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즉,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 행복 자체에 대한 신념, 특히 행복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믿음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복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감소시켰다.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은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연구 1 & 3) 고용과 연봉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연구 2 & 3). 특히,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낮은 주관적 안녕감)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행복하지 않은 평가자는 행복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면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평가자가 행복하면 행복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 왜 행복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에게 주목해왔다. 행복한 사람은 능력이나 사회적 인 따뜻함, 직업적인 생산성이 실제로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평

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Kashdan et al., 2004; Isen, 1993; Lucas, 2001; Aknin et al., 2013; Walsh, Boehm, & Lyubomirsky, 2018; DeLuga & Mason; 2000). 특히 연구자들은 행복이라는 긍정적 정서의 순기능이 대인 관계에서 호감을 얻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긍정 정서의 확장 및 구축(Broaden-and-Build) 이론에 따르면 긍정 정서는 사회적 자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Fredrickson, 2001; Isen, 1999; Salovey, Rothman, Detweiler, & Steward, 2000). 행복이라는 긍정 정서는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Waugh & Fredrickson, 2006)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위의 설명은 행복이라는 감정 상태가 가지는 사회적인 순기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행복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 대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한 사람의 특성과 더불어 그들을 바라보는 평가자의 심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특징 (the principle of situationism)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개개인의 해석 (the principle of construal)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Ross & Nisbett, 1991).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평가하는 사람의 해석 역시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평가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을 고려할 때, 행복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과 사회적 기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평가하는 이가 행복을 단순히 유전의 산물이라고 간주할 때는 행복한 사람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 행복한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준다. 즉,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한 가지로 행복(혹은 불행)이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는 믿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기 원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태나 지위는 정당한 결과이고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Lerner & Miller, 1978; Jost, Banaji, & Nosek, 2004). 이러한 공정 세상 신념(Belief in just world)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약자를 가혹하게 평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Abrams, Biki, Masser, & Bohner, 2003; Oldmeadow & Fiske, 2007).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상태가 순전히 “확률로 결정되는 현상”(Lykken & Tellegen, 1996)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따르는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연구 3의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행복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정보는 통제 조건의 기사와 비교할 때 참가자의 신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사람들은 감사하는 습관이나 관점 바꾸기와 같은 습관이 행복에 기여한다는 정보를 굳이 읽지 않아도 행복은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으며, 이 믿음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 행복의 원인으로서는 유전자 vs. 노력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행복한 사람들을 덜 선호하게 만드는 이유는 행복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 때문인가, 아니면 행복이 *노력에 의해서 달성되지 않는*다는 설명 때문인가? 이 질문은 행복에 대한 유전적 설명과 노력의 효과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처럼 실제로 대립하는 관



계인지를 묻고 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노력이 효과가 없다는 말이 유전자가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과가 아닌 과일이 모두 오렌지가 아니듯이, 노력과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서로 반대가 아니라면 본 연구 전반의 주장이나 조작 방식,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력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믿음과 노력에 대한 믿음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두 가지 이유에서 노력과 유전자는 행복을 설명할 때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전자는 노력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인간은 타고난 과학자와 같아서 현상의 원인을 자기 나름대로 찾으려 한다 (Kelley, 1967; Heider, 1958; Kruglanski, 1990). 전혀 노력하지 않음에도 행복한 사람이나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돌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행복이란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남겨두기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행복을 결정하는 원인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 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유전적 결정론이다. 유전자는 사람들 사이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본질(essence)로 흔하게 지목되는 요인이다(Dar-Nimrod & Heine, 2011). 자연 대 양육(Nature vs. Nurture)이라는 오랜 논쟁에서도 노력의 상대편에 위치한 개념은 노력하지 않음이 아닌 선천적 유전자였다. 더욱이 의학과 생물학이 일상에 친숙하게 다가온 현대 사회에서는 유전적 기전으로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둘째, 경험적으로 측정했을 때 두 개념은 상반된다. 사전 연구부터 본 연구에 이르기까지 행복에 대한 생물학적 기반에 대한 믿음과 노력 구성주의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노력하면 행복해진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유전자에 의해서 행복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이에 더하여, 유전자와 노력 중 한 쪽의 영향력을 지지하는 정보는 다른 쪽에 대한 믿음에도 영향을 준다.

유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설명은 행복은 생물학적 기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노력 구성주의(“노력하면 행복해진다”)에 대한 믿음을 유의미하게 약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결정론에 대한 믿음과 노력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행동이나 판단, 동기에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Choi et al., 2018). 예를 들어, 행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시도할 의도는 행복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믿을수록 낮아지지만, 노력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믿을수록 높아진다. 이상의 경험적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전자와 노력이라는 요인은 행복의 원인을 설명할 때 서로 상반되고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행복의 원인으로 유전자와 노력에 대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유전자와 노력 중 무엇이 상위 개념 혹은 선행하는 개념인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를 기준으로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행복해질 여지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지, 혹은 반대로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유전자의 영향력에 눈을 돌리게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행복해지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유전자에 근거하는 본질주의적 신념을 강하게 지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연구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구성 요소간의 위계를 밝혀냄으로써 본질주의적 신념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강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은 더 공정한 신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본질주의와 대인 평가(interpersonal judgment)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질주의가 성적 지향, 인종, 성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듯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특정 대상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행복의 원인에 대한 신념에 따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평가할 때 직감(gut feeling)이나 질투 심보다는 행복이란 감정이 노력에 근거한 정당한 결과인지를 인지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본질주의의 영향이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전통적으로 심리적 본질주의(psychological essentialism)나 고정론적 성향(fixed mindset)은 성별, 인종,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유희한 신념으로 인식되어 왔다(e.g. Haslam & Bastian, 2006).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본질주의가 오히려 소수자를 옹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Jayaratne et al., 2006). 본 연구 역시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행복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향이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완화시킴을 보여주었다. 소위 비윤리적 신념으로 불리던 본질주의의 선한 측면을 재발견한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착하고 공정한 신념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행복한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부정적이거나 편파적이라는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게 직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인종이나 성별은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 등의 기준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점이 높고 업무 능력이 더 훌륭한 사람에게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고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행위라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행복의 경우는 어떠한가? 어떤 이는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Fromm, 1956, p. 49)는 이유로, 행복한 사람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는 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공리주의적 기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Diener & Diener, 1996) 행복하지 않은 소수자가 차별을 받거나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Matthew

Effect; 마태복음 25:29) 현상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이  
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서로 다  
르게 평가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  
적 신념의 윤리적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 행복 수준과의 상호작용: 행복하지 않은 평가자 vs. 행복한 평 가자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에는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주  
효과만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의 행복 수준도 영향을 미쳤다. 평가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와 행복하지 않을 때(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때와 낮을  
때)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행복이 유전자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같은 내용의 믿  
음은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의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행복 수  
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  
의 원인에 대한 설명에 따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반대  
로 자기 비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재 이론의 메시지에 더 큰 영향  
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며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  
났다. 비록 예상과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는 이를 통계적으로 확  
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가자의 행복 수준과 행복에 관한  
신념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가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상태를 변호하는데 집중해서 해석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나의  
내재 이론이나 신념은 언제나 같은 내용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평가 대상의 특성(e.g. 인종 vs. 성적 지향: Jayaratne et al., 2006), 평  
가하는 대상이 보이는 일관성(Ryazanov & Christenfeld, 2018), 해석  
의 맥락(Levy, West, Ramirez, & Karafantis, 2006)에 따라 같은 내용

의 신념에 대한 해석과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평등주의적 맥락에서 이해하게 하면 현재의 부정적 상태도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완화된다(Levy, West, Ramirez, & Karafantis, 2006). 개인의 노력과 연습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사람들마다, 특히 사람들의 행복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을 비난할 의도보다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불행한 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력으로 행복해진다는 메시지를 노력 부족을 지적하는 비난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에 따라 행복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해석의 차이가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천적 함의

이상의 이론적인 의의에 덧붙여, 본 연구 결과는 행복한 사람을 둘러싼 현실의 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은 행복한 사람에 대한 추상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고용과 연봉 등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적합한 연봉의 액수라는 가장 현실적인 의사 결정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행복하지 않은) 본질주의자들은 행복한 지원자가 더 유능하고 고용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연봉에서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물론 이상의 결과는 직장 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이므로 실제 업무 상황을 완벽히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고용이나 연봉과 같은 평가를 내리며,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회사 조직 내에서 행복한 사람의 영향력을 추후 연구에서 다룬다면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실천적 함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메시지에 기초할 때,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이 얻는 사회적 혜택이 집단이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내재 이론은 소속된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Murphy & Dweck, 2010) 그리고 과학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Jayaratne et al., 2006). 인간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력을 강하게 신뢰하는 병원이나 연구 기관, 혹은 노력보다는 신의 뜻이나 운명이 인간에게 더 중요하다고 믿는 문화에서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메시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냉소주의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식의 비판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측정치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가장 혜택을 얻지 못한 때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제시 받았다. 이러한 경향성이 이상적인 감정 상태를 다르게 정의하는 동양과 서양 문화권 모두에서 나타났다는 결과도 흥미로운 점이다. 이상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보이더라도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쪽 문화권 모두 선호를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강한 결론보다는 더 많은 연구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초석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만으로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의 영향이 서로 다른 문화나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연구의 샘플과 데이터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을 주제로 다룬 연

구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기초로 연애나 결혼 상대로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법정에서의 평가 등 다양한 장면에서 행복한 사람이 선호되는지, 이 때 행복의 원인에 대한 믿음의 영향을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11.
- Aknin, L. B., Barrington-Leigh, C. P., Dunn, E. W., Helliwell, J. F., Burns, J., Biswas-Diener, R., Kemeza, I., Nyende, P., Ashton-James., C. E., & Norton, M. I. (2013). Prosocial spending and well-being: Cross-cultural evidence for a psychological univer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4), 635.
- Allende, I. (2007). *La suma de los días*. New York: Rayo.
- Amazon.com. (2010). *Bright-sided: How positive thinking is undermining America*. [online] Available at: <https://www.amazon.com/Bright-sided-Positive-Thinking-Undermining-America/dp/0312658850> [Accessed 4 Jun. 2018].
- Bastian, B., & Haslam, N. (2006).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stereotype endorse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28-235.
- Bettencourt, B., Charlton, K., Dorr, N., & Hume, D. L. (2001). Status differences and in-group bias: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status stability, status legitimacy, and group perme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7*(4), 520.
- Blackwell, L. S., Trzesniewski, K. H., & Dweck, C. S. (200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78(1), 246-263.
- Brickman, P., Coates, D., &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8), 917.
- Burger, J. M., & Caldwell, D. F. (2000). Personality, social activities, job-search behavior and interview success: Distinguishing between PANAS trait positive affect and NEO extraversion. *Motivation and Emotion*, 24(1), 51-62.
- Buss, D. M. (2000). The evolution of happiness. *American Psychologist*, 55(1), 15.
- Busseri, M. A., & Sadava, S. W. (2011). A review of the tripartit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Implications for conceptualization, operationalization, analysis, and syn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3), 290-314.
- Chang, E. C., & Asakawa, K. (2003). Cultural variations on optimistic and pessimistic bias for self versus a sibling: Is there evidence for self-enhancement in the West and for self-criticism in the East when the referent group is specifi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69.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
- Choi, I., Yu, J., Lee, J., & Choi, E. (2018). Essentializing Happiness Reduces One's Motivation to Be Happier. Manuscript in preparation.
- Corcoran, B. (2015, March 09). How barbara corcoran spots the right people to

hire. Retrieved from <https://www.americanexpress.com/us/small-business/openforum/articles/choosing-good-people/>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14).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Psychology Press.
- Crocker, J., Voelkl, K., Testa, M., & Major, B. (1991). Social stigma: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218.
- Cropanzano, R., & Wright, T. A. (1999). A 5-year study of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being and job performance.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51*(4), 252.
- Dar-Nimrod, I., & Heine, S. J. (2011). Genetic essentialism: on the deceptive determinism of DNA. *Psychological Bulletin, 137*(5), 800.
- De Neve, J.-E. (2011). Functional polymorphism (5-HTTLPR) in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i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a US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Human Genetics, 56*(6), 456.
- Deluga, R. J., & Masson, S. (2000). Relationship of resident assistant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nd positive affect with rated performa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2), 225-235.
- Diener, E., & Diener, C. (1996). Most people are happy. *Psychological Science, 7*(3), 181-18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26.
- Diener, E., Lucas, R. E., & Scollon, C. N. (2006). Beyond the hedonic treadmill: revising the adaptation theory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61*(4), 305.
- Diener, E., Ng, W., Harter, J., & Arora, R. (2010). Wealth and happiness across the world: material prosperity predicts life evaluation, whereas psychosocial prosperity predicts positive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1), 52.
- Dion, K. L., & Dion, K. K. (1987). Belief in a just world and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775.
- Disabato, D. J., Goodman, F. R., Kashdan, T. B., Short, J. L., & Jarden, A. (2016). Different types of well-be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Psychological Assessment, 28*(5), 471.
- Ehrenreich, B. (2009). *Bright-sided : how the relentless promotion of positive thinking has undermined America*.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Ferguson, Y. L., & Sheldon, K. M. (2013). Trying to be happier really can work: Two experimental studi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1), 23-33.
- Fisher, C. D. (2003). Why do lay people believe that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are correlated? Possible sources of a commonsense theor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4*(6), 753-777.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
- Fromm, E. (1956). *The art of loving*. New York: Bantam Books.
- Furnham, A. (1982). The Protestant work ethic and attitudes towards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55*(4), 277-285.
- Furnham, A., & Rees, J. (1988). Lay theories of schizophreni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4*(3), 212-220.
- Furnham, A., & Procter, E. (1992). Sphere-specific just world beliefs and attitudes to AIDS. *Human Relations, 45*(3), 265-280.
- Goethe, J. W. v. (1796). *Wilhelm Meister's Apprenticeship*. translated by H. M. Waidson.
- Gruman, J. C., & Sloan, R. P. (1983). Disease as justice: Perceptions of the victims of physical illnes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4*(1), 39-46.
- Harper, D. J., Wagstaff, G. F., Newton, J. T., & Harrison, K. R. (1990). Lay causal perceptions of third world poverty and the just world theor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18*(2), 235-238.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mingway, E. (1987). *The Garden of Eden*. New York: C. Scribner's.
- Henrich, J., Heine, S. J., & Norenzayan, A. (2010). Most people are not WEIRD. *Nature*, 466(7302), 29.
- Isen, A. M. (1999).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Affect, Creative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3, 17.
- Jayarathne, T. E., Ybarra, O., Sheldon, J. P., Brown, T. N., Feldbaum, M., Pfeffer, C. A., & Petty, E. M. (2006). White Americans' genetic lay theories of race differences and sexual orientation: Their relationship with prejudice toward Blacks, and gay men and lesbia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1), 77-94.
- Joshanloo, M., & Weijers, D. (2014). Aversion to happiness across cultures: A review of where and why people are averse to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3), 717-735.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 Jost, J. T., & Burgess, D. (2000). Attitudinal ambivalence and the conflict between group and system justification motives in low status 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3), 293-305.
- Kahn, B. E., & Isen, A. M. (1993).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variety seeking among safe, enjoyable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2), 257-270.

- Kashdan, T. B., Rose, P., & Fincham, F. D. (2004). Curiosity and exploration: Facilitating positive subjective experiences and personal growth opportun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3), 291-305.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Paper presented at th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 King, L. A., & Napa, C. K. (1998). What makes a life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156.
- Kitayama, S., & Markus, H. R. (2000).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ealization of sympathy: Cultural patterns of self,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113-161.
- Kluger, A. N., & Tikochinsky, J. (2001). The error of accepting the "theoretical" null hypothesis: the rise, fall, and resurrection of commonsense hypotheses in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27(3), 408.
- Koo, J. S., Lee, A. R., & Suh, E. K., M. (2009). Social consequences of happiness: Are happy people popular?.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ulture and Social Issues*, 15(1), 29-47.
- Kruglanski, A. W. (1990). Lay epistemic theory in social-cognitive psychology. *Psychological Inquiry*, 1(3), 181-197.
- LaPiere, R. T. (1934). Attitudes vs. actions. *Social Forces*, 13(2), 230-237.
- Lerner, M. J. (1965). 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performer's reward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55.
-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5), 1030.

- Levy, S. R., Chiu, C.-y., & Hong, Y.-y. (2006). Lay theories and intergroup rela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1), 5-24.
- Levy, S. R., Plaks, J. E., Hong, Y.-y., Chiu, C.-y., & Dweck, C. S. (2001). Static versus dynamic theories and the perception of groups: Different routes to different destin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2), 156-168.
- Levy, S. R., West, T. L., Ramirez, L., & Karafantis, D. M. (2006). The Protestant work ethic: A lay theory with dual intergroup implica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1), 95-115.
- Lucas, R. E. (2001). *Pleasant affect and sociability: towards a comprehensive model of extraverted feelings and behaviors*. ProQuest Information & Learning.
- Lykken, D., & Tellegen, A. (1996). Happiness is a stochastic phenomenon. *Psychological Science*, 7(3), 186-189.
- Lyubomirsky, S. (2000). *In the pursuit of happiness: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Experimental Psychology, Atlanta, Georgia.
- Lyubomirsky, S. (2007). *The h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New York: Penguin Press.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 Lyubomirsky, S., & Layous, K. (2013). How do simple positive activities increase well-be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1), 57-62.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
- Minkov, M., & Bond, M. H. (2017). A genetic component to national differences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8(2), 321-340.
- Mirels, H. L., & Garrett, J. B. (1971). The Protestant ethic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1), 40.
- Murphy, M. C., & Dweck, C. S. (2010). A culture of genius: How an organization's lay theory shapes people's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3), 283-296.
- Oldmeadow, J., & Fiske, S. T. (2007). System-justifying ideologies moderate status= competence stereotypes: roles for belief in a just world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6), 1135-1148.
- Petty, R. E., & Cacioppo, J. T. (1986).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pp. 1-24): Springer.
- Ross, L., & Nisbett, R. E. (201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Pinter & Martin Publishers.



- Rüsch, N., Lieb, K., Bohus, M., & Corrigan, P. W. (2006). Self-stigma, empowerment, and perceived legitimacy of discrimination among women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57*(3), 399-402.
- Ryazanov, A. A., & Christenfeld, N. J. (2018). Incremental mindsets and the reduced forgiveness of chronic fail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6*, 33-41.
- Salovey, P., Rothman, A. J., Detweiler, J. B., & Steward, W. T. (2000). Emotional states and physic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5*(1), 110.
- Schimmack, U., Oishi, S., Furr, R. M., & Funder, D. C. (2004). Pers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 facet-lev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8), 1062-1075.
-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
- Staw, B. M., Sutton, R. I., & Pelled, L. H. (1994). Employee positive emotion and favorable outcomes at the workplace. *Organization Science, 5*(1), 51-71.
- Suh, E., & Diener, E. (2006). Stereotypes of a "happy person": Cultural variations. Manuscript in preparation. Yonsei University.
- Sung, M., Suh, Eun Kook, M. (2007).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he positivity of "happy person" stereotyp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 2007*, 386-387.
- Tsai, J. L. (2007). Ideal affect: Cultural causes and behavioral consequenc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3), 242-259.

- Twain, M. (1923). *The mysterious stranger: and other stories*: New York: Harper & brothers.
- Uchida, Y., & Ogihara, Y. (2012). Personal or interpersonal construal of happiness: A cultur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2(4).
- Vaughan, G. M. (1978). Social change and intergroup preferences in New Zealan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 297-314
- Walsh, L. C., Boehm, J. K., & Lyubomirsky, S. (2018). Does Happiness Promote Career Success? Revisiting the Evid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69072717751441.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
- Waugh, C. E., &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 93-106.
- Weiss, A., Bates, T. C., & Luciano, M. (2008). Happiness is a personal (ity) thing: The genetics of personality and well-being in a representative sample. *Psychological Science*, 19(3), 205-210.
- Wicker, A. W. (1969). Attitudes versus actions: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25(4), 41-78.

## 부록

### 부록 1. 행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 척도(Essentialist Beliefs of Happiness Scale)

\*(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 1에서 미국 참가자에게 제시된 내용

\*하위 척도

- 변화 불가능성 : 1, 2, 3, 4
- 생물학적 기전 : 9, 10, 11, 12(역문항)
- 노력 구성주의 : 5, 6, 7, 8

이 질문지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장들에 대해서 평소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아래의 척도를 사용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Below are statements regarding different thoughts about happiness. Using the scale below, indicate your agreement with each item. There are no right or wrong responses, so please be open and honest in your responding.)

1=전혀 일치하지 않는다(Strongly Disagree),

7=매우 일치한다(Strongly Agree)

1.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복 수준은 일생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  
(In general, person's happiness level does not change much throughout one's lifetime.)
2. 한 사람의 행복감은 일시적으로 증진되거나 감소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삶에서 행복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The extent to which one feels happy can temporarily increase or decrease, but it does not change much overall for most people.)
3. 개인의 행복은 상당 부분 이미 결정되어 있다.  
(How happy one will be is pre-determined for the most part.)

4.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정해져 있으며, 변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Some people are born to be happy while others are born to be unhappy, and there is not much one can do to change that.)
5. 누구나 개인의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 행복해 질 수 있다.  
(Anyone can become happy with practice and effort.)
6. 개인의 의지에 따라 행복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One can change one's overall level of happiness through force of will.)
7. 불행한 사람도 노력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Even unhappy people can attain happiness if they strive to become happy.)
8.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Happiness depends on your perspective.)
9. 행복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Happiness is genetically determined.)
10.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에 유리한 유전자나 생물학적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The biological and genetic characteristics of happy people are more conducive to happiness than are those of unhappy people.)
11. 개인의 행복은 유전적 특징에 의해 대부분 설명된다.  
(One's level of happiness can largely be explained by one's genetic make-up.)
12. 한 개인의 행복 수준은 절대로 그 사람의 유전자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역문항).  
(The extent to which one experiences happiness can never be accounted for by genetic or biological factors.)

## 부록 2. 실험 조작을 위한 기사 전문(연구 3)

### 1) 유전자 조건 기사

행복 석학 교수,

“행복은 노력 아닌 유전 … DNA가 행복을 결정한다”

기사입력 2017-10-02 18:45 최종수정 2017-10-02 18:46

“행복의 40%는 노력, 환경의 영향은 10%에 불과하고, 무려 50%의 행복은 각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20년째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 긍정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A 교수는 지난 7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심리학회 컨퍼런스에서 “행복의 가장 큰 결정 변인은 유전자(DNA)”라고 정의했다.

그는 “행복해지기 쉬운 유전적 특성을 타고 난 사람은 웬만큼 열악한 환경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이 마음가짐이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은 공허한 말 장난”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전적 특성의 영향력이 후천적인 모든 요인들을 다 합친 것과 같거나 더 크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개인에 따라 행복의 Set-point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겪든지 결국 평상시의 행복 수준인 그 Set-point으로 되돌아 온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들이 같은 가정에서 자란 이란성 쌍둥이 보다 더 비슷한 성격과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며 개인의 행복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유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행복한 사람들에게 ‘행복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 유전자(5-HTTLPR)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행복을 결정하는데 유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노력에 달려있다고 조언하지만, 그러한 노력으로 행복해질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며, 본질적으로 행복은 유전자가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 2) 노력 조건 기사

행복 석학 교수,

“행복은 유전 아닌 습관… 노력한만큼 행복해진다”

기사입력 2017-10-02 18:45 최종수정 2017-10-02 18:46

"행복의 50%는 유전, 10%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40%는 연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20년째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 긍정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A 교수는 지난 7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심리학회 컨퍼런스에서 "행복의 유전과 환경의 영향은 노력과 연습에 의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행복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효과는 숫자에 불과하며, 행복해지기 위한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누구나 높은 행복 수준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인이 행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장기적으로 행복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감사 일기 쓰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등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실천한 집단은 일상적인 활동을 해온 대조 집단에 비해 연구 기간 동안 4배나 큰 행복감을 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며 개인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노력과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행복 지수가 매우 높은 개인들에게 '행복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 생활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행복을 결정하는데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삶의 조건이나 유전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요인들로 행복이 변화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본질적으로 행복은 노력이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 3) 통제 조건 기사

#### 행복 석학 교수

#### “행복이란 주관적 경험 … 단일 측정치의 행복 순위 비교는 위험”

기사입력 2017-10-02 18:45 최종수정 2017-10-02 18:46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혹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관적 경험을 행복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20년째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 긍정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A 교수는 지난 7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심리학회 컨퍼런스에서 행복 연구분야의 추세에 대해 “주관적 경험을 행복의 본질로 정의하며, 자기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하는 데는 대체로 학자들 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주관적 경험이 행복의 요소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긍정적 정서 경험과 삶의 만족감을 주관적 행복의 주요 요소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의미나 개인적 성장 등과 같이 반드시 긍정적 정서가 수반되지 않을 수 있는 경험들을 진정한 행복의 요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각국 행복 관련 통계 자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간 행복 수준을 비교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지표만으로 국가 행복 순위를 비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나라는 정서 경험으로 쟁 순위에서는 높더라도, 의미 경험에서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행복 순위 등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어떤 측정치를 사용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하나의 행복 측정치에 발표되는 순위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록 3.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척도**

- 1)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 아래의 글을 읽고, 평소에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나의 삶의 조건은 매우 훌륭하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원했던 것들을 모두 얻었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5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그대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atson, Clark, & Tellegen, 1988)

# 다음의 단어들은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현재를 포함한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진진한	1	2	3	4	5
2	짜증난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1	2	3	4	5
5	신나는	1	2	3	4	5
6	부끄러운	1	2	3	4	5
7	화난	1	2	3	4	5
8	감명받은	1	2	3	4	5
9	강인한	1	2	3	4	5
10	불안한	1	2	3	4	5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1	죄책감 드는	1	2	3	4	5
12	단호한	1	2	3	4	5
13	겁에 질린	1	2	3	4	5
14	집중하는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조바심 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 Abstract

# The Effect of Essentialist Beliefs of Happiness on the Preference to the Happy People

Jinh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happy person is more positively evaluated than others. Happy people are recognized as competent and kind and favored in the work-related evaluations such as successful employment results and higher amounts of salary. However, the evaluation of happy people is not always favorable. It is sometimes said that happy people have no regard for the problems in the society or they do not know the deepest meaning of life. Considering the mixed and controversial attitudes toward the happy person, it is possible that the preference of happy people varies. The present research predicted the evaluation of happy people is related to the belief about the nature of happiness and examined the hypothesized with empirical studies. Some believe that personal efforts could bring

happiness, while others think it is the genetic trait rather than the personal choice that determines the level of happiness. This paper tested whether the Essentialist Beliefs of Happiness – the primary cause of happiness is the genetic factor – would reduce the preference of the happy person. Three empirical studies with 516 participants in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vealed that the belief that happiness is caused by genetic traits rather than personal efforts diminished the positive evaluation to a happy person.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essentialist belief of happiness was larger on the evaluation of the participants who are less happ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of further studies were proposed.

**Keywords : Essentialist Belief, Happy Person, Preference, Happiness, Effort, Genetic factor**

**Student Number : 2016–20197**